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송희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24년 2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상 미

남 송 희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남송희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남 진 열	
위 원	고 관 우	
위 원	김 상 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4년 2월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Nam, Song-He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M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4.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정의	4
1) 부모양육태도	4
2) 삶의 만족도	5
3) 그릿	5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이해	6
1) 청소년의 개념	6
2) 청소년의 특성	7
2. 부모양육태도	9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9
2) 부모양육태도의 구성요인	11
3. 삶의 만족도	14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14
2)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인	16
4. 그릿	17
1) 그릿의 개념	17
2) 그릿의 구성요인	18
5. 통제변수	20

6. 선행연구 검토	21
1)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21
2) 부모양육태도와 그림의 관계	23
3) 그림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25
4)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그림의 관계	26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27
1) 연구모형	27
2) 연구가설	28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9
3. 연구변인	30
1) 독립변수	30
2) 종속변수	31
3) 매개변수	31
4) 통제변수	32
4. 분석방법	33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6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37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분석	37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	43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림 차이분석	44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45

5. 연구문제 검증	49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49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9
3)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의 그릿의 매개효과	50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54
2. 제언 및 한계	59
참고문헌	62
Abstract	72
부록(설문지)	74

<표 목 차>

<표1> 학자에 따른 청소년시기 영역별 특징	8
<표2> 그림의 구성요인	19
<표3>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도	29
<표4> 설문구성	30
<표5> 주요 변수 신뢰도	32
<표6>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5
<표7> 주요 변수 기술통계	36
<표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분석	37
<표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스함 차이분석	38
<표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 차이분석	39
<표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 차이분석	40
<표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부 차이분석	41
<표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강요 차이분석	42
<표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일관성 차이분석	43
<표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	44
<표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림 차이분석	45
<표17>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및 그림 간의 상관관계	48
<표18>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 그림의 매개효과	52
<표19> Sobel Test	53
<표20> 연구가설 검증결과	57

<그림목차>

[그림1] 연구모형	27
------------------	----

국문초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송희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김상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년패널조사(KCYPS)의 중1 패널의 4차(고1)자료로 남자 1,217명(53.7%), 여자 1,048명(46.3%), 총 2,265명의 데이터를 SPSS Statistics 21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 Cronbach's α 값을 구하여 신뢰도 검증과 빈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의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회계분석과 변수 간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절차에 따른 위계적회귀분석과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가 그릿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부모 양육태도와 그릿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매개변인인 그릿은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열정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그릿의 자세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 내 부모의 긍정적 역할을 위한 부모교육과 그릿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정책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청소년,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삶의 만족도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신미·전성희·유미숙, 2010). 삶의 만족은 태어나고 자라는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자신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인성, 사회관계 등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전효성·이귀옥, 2002).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사회 동향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주요국의 평균 7.6%에 비해 6.6%로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22).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2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2023 아동행복지수’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9%가 행복지수 ‘하’로 나타났다.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1년 4.4%, 2022년 7.7%에서 2023년 10.2%로 늘고 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3). 또한 2021년 국제아동권리기구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발표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 어린이들 삶의 질은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세이브더칠드런, 2021).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손보영 외, 2012).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낮은 삶의 만족도 지수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를 겪으며 의존자였던 양육자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시기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구분한 연구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희·박소영, 2015). 이는 연령

이 증가하면서 학업 스트레스와 청소년기의 환경과 심리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박영신·김의철, 2009; 박영신 외, 200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건강한 정신의 내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차적인 주요 환경적 요소이다(박은미, 199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연·정현주, 2008; 신미 외, 2010).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비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손진희·손은령, 2007).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지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성남, 2021). 황정용(202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방임적인 태도(박화옥·김민정, 2019), 거부, 강요, 비일관성(문호경, 2020)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충래와 김소연(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나 우울, 스마트폰 의존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2023 아동행복지수’ 보고서에서 행복 지수가 낮게 나타난 아동들의 특징으로 ‘늦은 수면’, ‘집콕’, ‘저녁 혼밥’, ‘온라인 여가활동’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3). 이러한 특징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미래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열정을 의미한다(이보람, 2020). 실패와 역경에도 오랫동안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물론 집단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

이 해야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ckworth, et al. 2007; 강보은, 2021). 김주환(2013)은 그릿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그릿은 성장의 능력이며, 내재적 동기와 회복탄력성, 끈기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긍정심리학에서도 그릿은 비인지적 성격 특성으로 성공적 수행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Duckworth, et al. 2007). 성공적 수행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공과도 연관되어 자신의 재능과 뛰어난 두뇌 같은 능력으로만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나 동기등 다양한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West, et al., 2016). 또한 그릿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대훈, 2018; 최효선·양수진, 2018). 부모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을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용진·나승일, 2019; 이선형·최자은, 2019).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삶을 위해 주요한 능력으로 떠오르는 그릿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인내하며 끈기있게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의 향상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릿의 특성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 권대훈(2018)은 그의 연구에서 그릿과 학업간에 높은 성취도를 예측했고 류영주와 양수진(2017)은 그릿은 삶의 만족도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릿의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릿을 매개효과로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 활동, 일주일 운동시간, 교내동아리 참여등의 통제변수를 두어 다각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4차(2021)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3. 용어정의

1) 부모양육태도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가정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녀의 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정의하며(김명민, 2010), 하위요인은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김태명·이은주, 2017).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신이 아닌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자신의 기능에 대해 내리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개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 만족감으로 정의하며(김신영·백혜정, 2008), 청소년 자신의 현재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3) 그릿

그릿은 장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의미하며(Duckworth, 2007),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미라·전향신, 2020)으로 정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이해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의 어원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를 뜻하는 ‘adolescence’는 ‘성인으로 성장하다’, ‘성숙으로 이르다’라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바라 보았으며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적 존재로 보았다 (Kimmel & Weiner, 1995).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 문화, 또는 정치, 경제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관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연령에 의한 구분을 보면, 1985년 UN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으로 공식 규정한다(UN, 1985). 국제식량기구에서는 ‘10세부터 24세 사이의 남녀 인구부문으로 결혼 여부를 불문한다’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통계개발원, 2020). 우리나라의 법규에서도 통일된 청소년의 연령 규정이 없으며 법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로 명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본다(법제처, 2004).

청소년기는 연령구분에 따른 특징이 나타난다. 청소년 초기는 12세~14세로 급격하게 변하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인지하면서 성적인 정체감이 생긴다. 중기는 15세~16세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신체와 심리 발달의 불균형으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어른들이 보기에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주변의 이성에게 관심을 쏟는다. 후기는 17세~18세로 자아발견을 위한 질문과 답을 찾으려는 특징이 있다.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질

문 속에서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해 나간다(노혁, 2010).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급변하게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의존적인 유아기에서 자립적인 성인기로 이르는 전환기를 말한다(김문실 외, 2002). 독일 사회학자인 쉘스키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이 발달해 가는 단계로 아동의 행동 역하를 벗어났으나 성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이다. 그렇기에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교육, 정치, 경제 등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권이중, 1996). 독일 사회교육자 쾨겔러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기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청소년기를 성취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권이중, 1996).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4차(2021) 데이터의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해마다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자료 수집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1이었던 패널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조사한 4차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2) 청소년의 특성

노혁은 그의 연구에서 다수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특징을 신체와 심리,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노혁, 2010).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신장과 체중의 증가가 이루어지며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성숙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며 급격한 관심을 보인다(엄신자, 2007). 신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성장하는 신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기관의 크기가 증가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김소야자, 2004). 남성은 13~14세경, 여성은 12~13세 경 2차 성장을 발현시킨다(노혁, 2010).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성적인 변화, 이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불안, 우울, 반항 등의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주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김예성·안재진, 2014).

심리적 특성으로는 정서적 발달이 풍부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자아정체성의 발달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성향과 친구나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된다(노혁, 2010).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이 누구이며 삶의 목적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이다(이미리·김춘경·여종일, 2019). Erikson(1968)은 삶의 중요한 과제는 자아정체감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자신이 성인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며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지길 원한다. 주로 또래 집단에서 공통된 관심과 취미를 청소년들끼리 무리를 이루며 도덕적 판단 기준도 또래집단에서 구하려고 한다(신성철, 2018).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관계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다(김정열·김산용, 2014).

장휘숙은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에 인지 발달적 특성을 추가하여 이 시기 청소년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의 인지가 가능하며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는 시기로 정의했다(장휘숙, 2004). 노혁과 장휘숙의 청소년 시기의 영역별 특징을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학자에 따른 청소년시기 영역별 특징

신체적 특 성	청소년기는 신장과 체중이 급속히 변화한다. 여성은 체지방이 증가하며 신장이 급격히 커지고 몸무게와 체형의 증가가 이루어 진다. 남성은 안드로겐의 분비가 증가하여 어깨뼈가 커지고 어깨가 넓어진다. 또한 성호르몬의 분비로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성적인 변화를 겪는다.	비고
심리적 특 성	활발하게 정서적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감성적인 감정과 개인의 의지가 강해지며 자아의 정체성이 향상되면서 부모와 가정에서 독립하려는 성향이 보인다. 또한 지적 발달에 따라서 비현실적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고차원적인 문제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노 혁 (2010)
사회적 특 성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면서 가정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하려고 하려는 때이다. 또한 인지가 발달하며 기존 세대와 사회의 가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다. 이 시기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과정의 기초가 된다.	
인지발달적 특 성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에 대해 인지가 가능하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며 자기 중심성을 줄여나간다.	장휘숙 (2004)

2. 부모양육태도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부모는 가장 중요한 일차적 환경이면서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인간의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이다(김희연, 2019).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요성을 지닌다(이정숙, 2000; 모상현 외, 2009; 이현정·전주성, 2021).

부모양육태도는 그 개념과 정의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Schaefer(1959)는 부모양육태도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자녀의 인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자녀의 성격뿐 아니라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추성경, 2011).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자율적-적대적 태도, 통제적-적대적 태도로 구분했다. 애정적 태도는 자녀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호의적인 정서표현, 평등한 관계 등을 의미한다. 적대적 태도는 자녀를 처벌하거나, 무시, 부담주기 등의 적대적인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 자율적 태도는 자녀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제적 태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태도로 자녀에 대한 불안과 높은 성취요구를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과 거부, 지배와 복종의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녀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수용적인 태도로 설명하였으며, 사랑은 부족한 채 자녀에게 민감한 방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거부적 태도로 설명했다. 또한 높은 기준으로 자녀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지배적 양육태도라 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자녀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복종적 양육태도로 설명했다.

김경민(2010)은 부모양육태도를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녀의 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은혜(2012)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도하고 가르치며, 신체적·영적·정신적 필요를 채우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권윤정(2017)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보편적인 행동양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고 나타내는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동일하게 지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신수지, 2015).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실제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강희진, 2004). 양육태도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르게 인식되어 같지 않을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주영돈, 2000).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부모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그 다양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분류방법이 상이하고, 양육태도를 유형화하는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정윤조, 2016). 그 가운데 부모양육태도의 한국형 척도를 개발한 허묘연(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한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의 양육방식으로 구분되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양육방식을 포함하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부모양육태도의 구성요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연구자에 의해 주로 차원론적 접근과 유형론적 접근에 따라 분류되어 왔다(허묘연, 2004). 차원론적 접근은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각각 분석하는 독립적인 차원의 분류를 의미하며 유형론적 접근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유형화하는 것이다(정은주, 2021).

Schaefer(1959)는 차원론적 접근의 대표학자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자율형, 애정-통제형, 거부-자율형, 거부-통제형으로 제시하였다. 애정-자율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애정-통제형은 부모가 자녀를 애정하면서 간섭하며 통제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거부-자율형은 자녀를 방임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양육태도이며, 거부-통제형은 자녀의 심리와 행동에 통제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Baumrind(1991)은 유형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애정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권위적 양육, 권위주의적 양육, 허용적 양육, 거부적 양육으로 분류하였다. 권위적 양육은 부모의 애정과 통제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를 말하며 제한된 범위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통제가 필요할 때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권위주의적 양육은 통제 수준은 높지만 부모의 애정은 낮은 양육태도를 말하며 정서적 거리를 두고 지시나 지배로 자녀를 통제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허용적 양육은 통제는 낮으나 부모의 애정 수준은 높은 양육태도이다. 자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규칙이나 처벌도 없는 양육태도를 말한다. 거부적 양육은 애정과 통제 모두 낮은 수준의 양육태도이다.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자녀의 요구에도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양육태도이다(신효정·이지희, 2018).

Baumrind(1967)은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권윤정, 2017 재인용) 허묘연(2004)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부모양육태도의 척도 개발을 주장하며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애정, 방치, 학대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Skinner, Johnson, & Snyder(2005)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내재되어 있는 동기를 스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동기촉진 모형의 요인을 제안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 자녀가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며 명확한 규칙은 자녀의 유능감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적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건이 된다고 설명한다(김태명·이은주, 2017).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Skinner(2005)가 개발한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로 타당화 한 것이다.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밀관성을 개별적으로 살펴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긍정적 양육태도 :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순규, 2004). 긍정적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가족구성이나 가정의 사회적 지위, 문화적 배경, 가정의 분위기, 자녀의 개인적 조건, 부모의 개인적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의 성장배경이나 성격, 부모의 가치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Fishbein & Ajzen, 1975).

김태명과 이은주(2017)는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연구에서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으로 따스함과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으로 분류했다.

따스함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서로 정서를 나누는 양육태도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진심어린 보살핌을 말한다(Schaefer, 1965). 이 연구에서 따스함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자신을 반가워하며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자율성지지는 부모가 자녀를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있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양육태도로 정의된다(Grolnick & Ryan, 1989). 이 연구에서 자율성지지에 대한 문항으로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을 지각하며,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이 허용함을 인식하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구조제공은 부모가 자녀에게 명확한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훈육하는 양육태도이다(송홍정, 2021). 구조제공에 대한 문항 구성은 자녀가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이 정보를 제공하며 알려주고,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알고 싶어할 때 설명해주며,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해결 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며, 규칙을 말할 때는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 주는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2) 부정적 양육태도 : 거부, 강요, 비일관성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충권·양혜린,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예민한 반응을 받는 등 부적응적 특징을 보이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하다고 보았다(송헌복, 2001).

김태명과 이은주(2017)는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연구에서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으로 거부와 강요, 비일관성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거부는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원하지 않는다는 자녀의 인식으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믿음이다(Rohner et al., 2005).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무관심하게 대하며 때로는 적대감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한다(허묘연, 2000).

이 연구에서 거부는 부모님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으며 부모님이 자신을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 부모님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며 자신이 하는 어떤 것도 부모님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음을 자녀가 지각하는 것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강요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와 행동을 통제하는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삶의 방식과 정해진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적인 태도의 양육방식으로 정의한다(Skinner, Johnson, & Snyder, 2005). 이 연구에서 강요는 부모님은 자신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며 부모님의 방식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든 것과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강요로 보고 문항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비일관성은 일관성없이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양육태도를 말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기준 없이 부모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의미한다(권미나·이진숙, 2020). 이 연구에서는 비일관성을 부모님이 어떤 약속을 해도 지켜질지 알 수 없으며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도 하지 않을 때가 있으며 자신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며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는 태도로 문항을 구성했다.

3.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김승진, 2015; 김윤희·김현숙, 2016; 송홍준, 2018).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삶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도를 나타내며, 연구자에 따라 삶의 질, 안녕, 주관적 안녕, 행복, 심리적 안녕 등의 개념으로 사용된다(이연옥, 2011; 최미원, 2017).

김신영과 백혜정(2008)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경험과 성취, 관계의

만족, 자신의 역량과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개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 만족감으로 정의했다. 신미(2010)는 현재 자신의 삶에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현재까지 삶을 잘 살아왔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백진아(2015)는 개인의 생활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자신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운택과 최재혁(2017)은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 상태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위치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이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행복과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를 자신이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상태(김신영 외, 2006), 주관적 웰빙과 같은 의미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개인의 행복한 상태로 설명하기도 한다(류정희 외, 2019).

삶의 만족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요인과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기에 개인의 경험과 주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김안나·김효진, 2018).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른 변화를 겪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구현영 외, 2006).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는 청소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적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각박한 현실에서 삶의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홍미애, 2007).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도 있다(임종필, 2017; 오해섭 외, 2018). 중학교 2학년이던 시기에 행복하다고 한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업성적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행복하다고 한 청소년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학업에 대한 적응과 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재선·서은국, 2013).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개인적인 행복한 감정이 낮으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삶에 대한 욕구와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박가화·이지민, 2014).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 학업성취, 비행 행동, 학교생활 적응,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자아 인식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낮은 삶의 만족도는 생애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윤선·최아람, 2019; 오은주·남재걸, 2017; 이예진 외, 2019; 서재욱·정운태, 2014). 따라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래세대와 변화하는 사회에서 체계적 정책을 수립하며 시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2)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인

2022년 통계청 발간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거시적 환경을 반영하는 사회적 배경과 미시적 환경과 삶의 질을 반영하는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건강, 학습역량, 여가활동 참여, 안전·위험행동, 가족과 친구등과의 관계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배경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생활, 인간관계등 폭넓게 바라봐야 함을 시사한다. 박효정과 연은경(2003)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경과 오은주(2016)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수록, 가족의 지지와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로 박영신과 김의철(2008)은 자기조절, 화목한 가정, 경제적 안정, 가정과 학교 등 생활영역에서의 인간관계와 성취감 등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에서 조사된 삶의 만족도 5문항을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임영진(2012)이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이다. 문항 내용은 청소년 자신이 현재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

루어 냈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그릿

1) 그릿의 개념

그릿은 2007년 미국의 학자 Angela Duckworth에 의해 소개된 이후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임효진, 2017). Duckworth(2007)는 그릿을 장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에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 중 하나로써 미래의 성취와 성공을 예측하는 그릿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김미숙 외, 2015).

김주환(2013)은 그릿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릿이 능력 성장의 믿음(Growth mindset)의 G,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R,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의 I, 끈기(Tenacity)의 T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GRIT으로 명명하였다고 설명하며 그릿은 바로 이들 개념의 총체라고 정의했다(김주환, 2013; 송홍정, 2020).

하혜숙, 임효진과 황매향(2017)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을 설명했고 이미라와 전향신(2020)은 그릿을 ‘어떤 관심사에 대해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특질’이라 정의했다. 또한 이현정과 전주성(2021)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랫동안 흥미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그릿을 설명했다. 국내 연구에서 몇몇 학자들은 그릿을 “투지”로 번역하여 설명했다(김진구·박다운, 2017; 이수란, 2015; 최미경, 2016) “불굴의 용기”나 “기개”로 설명하

기도 했다(김미숙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영어표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릿이라고 명명했다. 그릿의 한글 번역이 그릿의 개념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국내의 언론이나 학계에서 새로운 이론으로 발표된 “그릿”을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릿의 의미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릿 개념을 처음 제안한 DuckWorth는 재능은 노력이 더해졌을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뜻하지만 최종적 성취는 기술이 향상되기까지의 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들이는 노력은 시간이 들어도 그만두지 않는 힘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견디고 노력하는 힘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릿이 높으며, 그에 반해 그릿이 낮은 사람은 목표나 관심이 자주 바뀌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힘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Duckworth, 2007).

그릿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그릿이 성공을 위한 능력으로 알려지는 것에 비해 학자들 중에는 그릿의 개념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Cred'e·Tynan·Harms, 2016). 이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릿의 개념을 사용하고 성공의 실천개념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점과 그릿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임효진, 2017).

임효진(2017)은 그릿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그릿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과 그릿 척도의 불완전성에 대해 설명하며 그릿의 재개념화를 위한 제언을 한다. 그릿의 개념을 설명하는 핵심점 구성 요소인 장기적인 목표, 열정, 인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조작화의 필요성과 그릿의 정의가 얼마나 타당한가를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릿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릿의 개념에 재정의 논의도 시작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그릿 개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개인의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설명된다(Duckworth et al., 2007).

2) 그릿의 구성요인

그릿의 구성요인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Duckworth 외(2007)가 주장한 ‘꾸준한 노력’과 ‘흥미유지’를 구성요인으로 사용하

였다. 이에 Datu, aldez와 King(2016)은 그릿의 척도는 문화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한다.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그릿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는 ‘꾸준한 노력’은 동일한 타당성을 갖을 수 있지만 ‘흥미유지’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낮은 타당성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그릿의 구성요인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두 가지로 설명한다(임효진·하혜숙·황매향, 2016; 정혜원·김예림·박소영, 2020).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노력지속’과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오래 추구하는 것이 ‘흥미유지’이다. 노력지속은 긴 시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가와 관련된 요인이고, 흥미유지는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유지해 나가는가와 상관된 것이다(임효진 외, 2016).

Duckworth(2019)는 그릿의 구성을 크게 열정과 지속적 노력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요소를 흥미와 친사회적인 목표, 의식적 연습, 희망의 네가지를 제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목표를 설정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Duckworth(2019)가 그릿을 설명하는 구성요인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그릿의 구성요인

열정		지속적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과제를 포기하지 않음. 멀리 목표를 두고 이후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함.		-결정한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력과 인내심, 결단력 -어려움 앞에서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끈기.	
흥미	친사회적 목표	의식적 연습	희망
-개인의 흥미, 관심 -몰두	-의미있는 목표 -궁극적 목적과 이타성	-약점 및 실패에 대한 보완 -자기점검에 따른 성취 수준 높이기	-가능성에 대한 긍정 -역경에 대한 통제감

(박예라, 2020)

열정이란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꾸준히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활동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다(Vallerand, 2015). 김난도(2010)는 열망에는 아픔이 수반되기 마련이라며 “Passion”이라는 단어가 아픔이라는 의미를 갖는 “passio”를 어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열정을 갖고 관심을 쏟는 분야를 찾아내어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희망을 갖고 지속적 노력을 하는 것이 그릿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릿이 높은 이들은 자기통제와 만족지연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외부의 보상이나 강요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 몰입하고 노력을 지속한다(Duckworth, 2019).

임현희(2013)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한 열정과 태도를 학업적 그릿이라고 정의하며 그 하위요인으로 학업적 열정, 학업적 끈기, 학업적 흥미유지등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자료의 청소년의 개인발달 영역 중 그릿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Duckworth(2006)가 개발한 아동용 척도 8-Item Grit Scale-Children의 문항을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로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통제변수

1) 성별,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시간, 교내동아리 참여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인지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송홍정(202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조성남(202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영지(2021)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시기의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

에 대해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독서활동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과 함께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기의 독서는 삶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의 근본이 되는 논리적·창의적 사고력과 의사결정에 있어 능력을 발휘하며 고도의 지적능력을 얻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더 한다(정대근·홍현진, 2014). 서혜진(2012)은 그의 연구에서 독서활동이 사회적 위축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오늘 날 청소년들은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독서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 및 신체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활력소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경미·염유식, 2018). 또한 활동적인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활동적인 추구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즐거움과 정서순환, 심리적인 성취감 등을 경험함으로써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재운, 2003).

교내 동아리 활동은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활동으로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며 다양한 생활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공통적인 경험을 하며 건전한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달그락 청소년과 정건희 외, 2018). 또한 2015년~2017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지역 자원 연계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참여효과 분석에서 사업참여 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오해섭·최인재·염유식·김언주, 2018).

6.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신경·박민경·안지

선, 2014).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는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촉진하기도 하고 부정적이 양육태도의 영향은 성인기까지의 장기적인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면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박선희, 2022).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문경과 오은주(2016)는 부모의 양육태도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호의적이고, 의사소통이 서로 활발할수록, 가족의 격려와 가족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혔다. 자녀를 존중하며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손보영 외, 2012).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애정과 애착, 합리적 부모양육태도로 설명되는데 그 중 부모의 애정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받아 긴장상황에서도 부모를 의지하고 안정감을 느껴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임혜림·김서현·정익중, 2014). 차진화와 노종숙(2018)은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한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양육태도는 학교규칙과 학습활동, 교사나 교우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했다. 기성진(2012)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따스하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학교 적응도도 높다는 관련성을 보고했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이끌고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은아와 배민영(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부모로부터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한 청소년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타인에게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조채윤·권연희, 2014). 이러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위축과 부정 정서와 충동성을 높여 자살이나 자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숙, 2013). 또한 부모의 강요적인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와 우울, 강박, 공격성이 높았다(김소영·송주연, 2020). 이는 모두 삶의 만족과도 연결되는 정서이다. 전명순과 김태균(2018)은 부정적 양육태도인 방임과 학대는 자녀의 우울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허묘연(2004)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스트레스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우울, 불안, 정신병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밖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비행, 자아개념, 일탈행동, 공격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은주·최말옥, 2014; 석말숙·구용근, 2015; 한유리·안세윤·송원영, 2017).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 부모 또한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김용희·한창근, 2017). 양육자는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변화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백승희외, 2019).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할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도 감소할 확률이 높음을 설명한다.

2)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의 관계

아동청소년기의 그릿 형성은 부모와의 활발한 관계를 통해 성취의 기준과 실패를 수용하는 방법 등을 학습하며 형성하게 된다(Duckworth, 2016). 외국에서 개발된 그릿 교육과정에서도 그릿을 높이기 위해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Hoerr, 2013).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애정과 사랑을 느끼는 중학생은 높은 그릿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한정욱·박선미, 2018), 부모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을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용진·나승일, 2019; 이선형·최자은, 2019). 부모가 따스함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며 자녀에게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지지하거나 규칙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녀의 그릿이 증가한다는 연구들(김태명·이은주, 2017; 이미라·전향신, 2020)이 보고되었다. 또한 김선정(2020)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며, 그릿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완전 매개한다는 것이 그릿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에 효과를 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내적 욕구 및 성장마인드셋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이선형·최자은, 2019). Shqw(2017)는 자율성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릿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돌봄 수준이 높으면 그릿 수준도 높다고 보고했다. Mandelbaum(2018)은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인 안정애착이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현정과 전주성(2020)은 그들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그릿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릿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며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릿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부정적으로 양육하면 자녀의 그릿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김미숙 외, 2015; 김유민, 2018; 김은혜·김민정, 2020). 임효진과 이소라(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에 대해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 예측력을 보였다. 이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소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가 통제적이고 적대적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그릿이 감소하였고(김미숙 외, 2015), 부모의 거부나 강요, 비일관적인 양육은 청소년의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서영, 2020). Show(2017)는 간섭이 심한 부모는 자녀의 그릿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개인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의 발휘를 어렵게 하여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릿을 낮아지게 했다(김은혜·김민정, 2020).

이처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김유민, 2018)는 연구결과도 있다.

3) 그릿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을 의미하는 그릿은 초기에 학업적 성공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대훈, 2018; 최효선·양수진, 2018). 국내에서 진행된 그릿과 삶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릿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역량을 높여주고, 이는 곧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진구·박다운, 2018; 최효선·양수진, 2018). 최효선과 양수진(2018)의 연구에서 그릿은 희망,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현정, 손수경과 홍세희(201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그릿이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그릿이 낮아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다양한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이 그릿을 매개로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문선·양수진, 2019). 그릿은 또한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낮춰 삶의 의미를 높인다(Kleiman et. al., 2013). 이는 절망에서 자살의 생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Pennings et al., 2015)와 같은 의견이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그릿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이거나 매개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그것의 관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내적 요인이나 환경요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특성을 갖는다(심재휘·이기혜, 2018; 최혜선, 2021). 진병주와 정혜원(2020)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그것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손보영 외(20212)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그것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신경·박민경·안지선, 2014; 조규영·김승윤, 2021; 한유리·안세윤·송원영, 2017). 또한 이현정(2019)의 연구에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그것 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그것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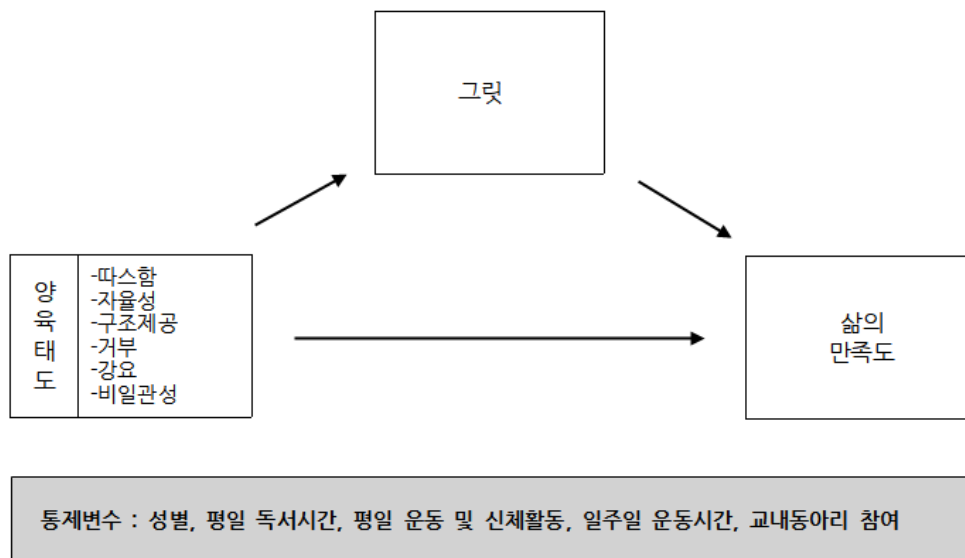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이들 간에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그릿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그림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그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그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림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KCYPS 2018¹⁾의 4차 자료를 사용하여 2,265명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하여 복합적인 개인발달과 환경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KCYPS 2018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매년 종단적으로 조사하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차에 걸쳐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 시점에서는 2021년 4차 자료까지 공개된 상태이며 1차 시기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이 4차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KCYPS 2018은 1차 시기인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대상으로 원패널을 구축하였으며 매년 원패널 유지율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KCYPS 2018은 2017년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고 17개 시도별로 2개교의 표본을 할당한 후, 학생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할당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남자 1,217명(53.7%), 여자 1,048명(46.3%)이다.

<표 3>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도

성별	빈도	백분율(%)
남	1,217	53.7
여	1,048	46.3
전체	2,265	100.0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4차년도(2021년) 데이터

3. 연구변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그것의 총 세 가지 변인이며, 조사 대상자의 배경 변인은 성별,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시간, 교내동아리참여 등 5문항을 이용하였다. 배경변인으로 선정된 문항은 청소년의 일상적 활동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신체활동과 독서시간등은 청소년의 끈기 및 노력지속과 관련된 사항으로 삶의 만족도와 그것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의 배경 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설문은 <표4>와 같다.

<표 4> 설문구성

변수명	특정항목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특 성	성별,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시간, 교내동아리참여	5문항
독립변수	부모양육태도	24문항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5문항
매개변수	그릿	7문항

1) 독립변수 :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에서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Skinner, Johnson과 Snyder(2005)가 다양한 양육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것을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정서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로 각 요인별로 4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지각한 것을 의미하며 거부, 강요, 비일관성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적 양육태도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은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는 <표5>와 같이 .910이며 각 문항별로 ‘따스함’ .875, ‘자율성’ .873, ‘구조제공’ .734 ‘거부’ .805, ‘강요’ .733, ‘비일관’ .791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KCYPS 2018에서 조사된 삶의 만족도 5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것을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하고 임영진(2012)이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로 타당화한 것이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 a)는 <표5>와 같이 .811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 그릿

본 연구에서 측정한 그릿은 KCYPS 2018 자료의 청소년의 개인발달 영역 중 그릿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Duckworth(2006)가 개발한 아동용 척도 8-Item

Grit Scale-Children의 문항을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분석에서 신뢰도의 문제로 21-2번 문항인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를 제외하였다. 21-1번, 21-3번, 21-5번, 21-6번 문항은 흥미유지에 관해 묻는 문항이며 21-4번, 21-7번, 21-8번 문항은 노력지속에 관한 문항이다. 흥미유지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릿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는 <표5>와 같이 .649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수 신뢰도

주요변수 (설문문항)		Cronbach’ a
	따스함 (24-01, 24-02, 24-03, 24-04)	.875
	자율성 (24-09, 24-10, 24-11, 24-12)	.873
부모의	구조제공 (24-17, 24-18, 24-19, 24-10)	.734
양육태도	거부 (24-05*, 24-06*, 24-07*, 24-08*)	.805
	강요 (24-13*, 24-14*, 24-15*, 24-16*)	.733
	비일관 (24-21*, 24-22*, 24-23*, 24-24*)	.791
	전체	.910
삶의만족도	(15-01, 15-02, 15-03, 15-04, 15-05)	.811
그릿	(21-1*, 21-3*, 21-4, 21-5*, 21-6*, 21-7, 21-8)	.649

*역문항

4) 통제변수 : 성별,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 시간, 교내동아리 참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릿과 삶의 만족도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와 청소년의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시간(지난 일주일 동안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 교내동아리참여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여자 청소년은 0, 남자 청소년은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은 ‘30분 미만~4시간 이상’은 있다 0, 없다 1, 교내동아리참여는 ‘1회~ 5회이상’ 있다 0, 없다 1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본연구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것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그것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것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덟째, 그것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평일 독서시간유무,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 일주일 운동시간유무(지난 일주일 동안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 교내동아리참여유무 등 5개 항목의 변인을 두었으며 그 특성은 <표6>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217명(53.7%), 여학생은 1,048명(46.3%)으로 조사되었다.

평일 독서시간은 전혀 안 함이 988명(43.6%)로 가장 많았으며 30분~1시간미만이 579명(25.6%), 30분~1시간미만이 402명(17.7%), 1시간~2시간미만이 208명(9.2%), 2시간~3시간미만이 67명(3.0%), 3시간~4시간미만이 12명(.5%), 4시간 이상이 9명(.4%)으로 나타났다.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은 전혀 안 함이 677명(2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분미만이 493명(21.8%), 30분~1시간미만이 499명(22.0%), 1시간~2시간미만이 469명(20.7%), 2시간~3시간미만이 89명(3.9%), 3시간~4시간미만이 23명(1.0%), 4시간 이상이 15명(.7%)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863명(38.1%), 1시간이 564명(24.9%), 2시간이 379명(16.7%), 3시간이 235명(10.4%), 4시간 이상이 224명(9.9%)로 나타났다.

교내동아리 연간참여횟수는 없다가 1,418명(62.6%), 1~2회 196명(8.7%), 3~4회 145명(6.4%), 5회 이상 506명(22.3%)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265)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1217	53.7
	여학생	1048	46.3
독서시간 (평일)	전혀 안 함	988	43.6
	30분 미만	579	25.6
	30분~1시간 미만	402	17.7
	1시간~2시간 미만	208	9.2
	2시간~3시간 미만	67	3.0
	3시간~4시간 미만	12	0.5
운동 및 신체활동 (평일)	4시간 이상	9	0.4
	전혀 안 함	677	29.9
	30분 미만	493	21.8
	30분~1시간 미만	499	22.0
	1시간~2시간 미만	469	20.7
	2시간~3시간 미만	89	3.9
일주일 운동시간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	3시간~4시간 미만	23	1.0
	4시간 이상	15	0.7
	없다	863	38.1
	1시간	564	24.9
	2시간	379	16.7
교내동아리참여 (연간 참여 횟수)	3시간	235	10.4
	4시간 이상	224	9.9
	없다	1418	62.6
	1~2회	196	8.7
	3~4회	145	6.4
	5회 이상	506	22.3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는 <표7>과 같다.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는 6개의 하위변인으로 분류하였고, 전체 부모양육태도는 최소값 1.25서 최대값 4점 사이에 있으며, 평균점수는 3.07(SD=.40)이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따스함 3.20(SD=.54), 자율성 3.19(SD=.54), 구조제공 2.94(SD=.49), 거부 3.18(SD=.60), 강요 2.92(SD=.57), 비일관성 2.99(SD=.58)로 따스함의 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강요의 양육태도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최소값 1점에서 최대값 4점 사이에 있으며, 평균점수는 2.61(SD=.51)이다.

매개변수인 그림의 최소값은 1점에서 최대값 4점 사이에 있으며, 평균은 2.57(SD=.41)이다.

<표 7> 주요 변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M)	표준편차				
독립변수	따스함	1.00	4.00	3.20	.54				
	부	자율성	4.00	3.19	.54				
	모								
	양					구조제공	4.00	2.94	.49
	육					거부	4.00	3.18	.60
	태					강요	4.00	2.92	.57
	도					비일관성	4.00	2.99	.58
	전체	1.25	4.00	3.07	.40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1.00	4.00	2.61	.51				
매개변수	그림	1.00	4.00	2.57	.4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는 <표8>과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t=-1.212$, $p=.226$), 평일 독서시간유무($t=1.112$, $p=.266$),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t=-.951$, $p=.342$),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890$, $p=.374$), 교내동아리참여유무($t=-1.853$, $p=.064$) 변수에서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53	.25	-1.212	.226
	여	1,048	2.54	.24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2.53	.24	-1.112	.266
	있음	1,277	2.54	.25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53	.25	-.951	.342
	있음	1,588	2.54	.25		
일주일 운동시간	없음	863	2.55	.24	.890	.374
	있음	1,402	2.53	.26		
교내동아리 참여	없음	1,418	2.53	.26	-1.853	.064
	있음	847	2.55	.22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따스함, 자율성,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밀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스함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스함의 차이는 <표9>와 같다. 따스함은 성별($t=-1.968$, $p=.049$)과 교내동아리참여유무($t=-8.597$, $p=.000$)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일 독서시간유무($t=-.603$, $p=.547$),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유무($t=-.020$, $p=.990$),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1.894$, $p=.058$) 변수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학생($M=3.22$)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따스함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교내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M=3.33$)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따스함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스함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3.18	.56	-1.968*	.049
	여	1,048	3.22	.52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3.19	.54	-.603	.547
	있음	1,277	3.20	.55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3.20	.52	-.020	.990
	있음	1,588	3.20	.55		
일주일 운동시간	없음	863	3.17	.51	-1.894	.058
	있음	1,402	3.21	.56		
동아리 활동	없음	1,418	3.12	.52	-8.597***	.000
	있음	847	3.33	.55		

* $p < .05$, ** $p < .01$, *** $p < .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의 차이는 <표10>과 같다. 자율성은 교내동아리참여유무($t=-6.669$, $p=.000$)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t=-.921$, $p=.357$)과 평일 독서시간유무($t=1.56$, $p=.119$),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유무($t=.733$, $p=.463$),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801$, $p=.423$)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내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M=3.29$)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자율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3.18	.55	-.921	.357
	여	1,048	3.20	.53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3.21	.55	1.56	.119
	있음	1,277	3.08	.53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3.20	.54	.733	.463
	있음	1,588	3.19	.54		
일주일 운동시간	없음	863	3.18	.51	-.801	.423
	있음	1,402	3.20	.56		
동아리 활동	없음	1,418	3.13	.52	-6.669***	.000
	있음	847	3.29	.57		

* $p < .05$, ** $p < .01$, *** $p < .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의 차이는 <표11>과 같다. 구조

제공은 교내동아리참여유무($t=-3.031, p=.002$)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t=-.213, p=.831$)과 평일 독서시간유무($t=-.226, p=.821$),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t=-.176, p=.86$),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212, p=.832$)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내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M=2.98$)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구조제공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94	.50	-.213	.831
	여	1,048	2.94	.48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2.94	.50	-.226	.821
	있음	1,277	2.95	.49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94	.49	-.176	.860
	있음	1,588	2.94	.49		
일주일 운동시간	없음	863	2.94	.46	-.212	.832
	있음	1,402	2.95	.51		
동아리 활동	없음	1,418	2.92	.49	-3.031**	.002
	있음	847	2.98	.50		

* $p < .05$, ** $p < .01$, *** $p < .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부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의 차이는 <표12>와 같다. 거부는 평일 독서시간유무($t=-2.936, p=.003$),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3.519, p=.000$), 교내동아리참여유무($t=8.348, p=.000$)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t=-1.132, p=.258$)과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t=-1.545, p=.123$),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평일 독서시간을 갖는 청소년(M=1.90)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일주일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M=1.87)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또한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M=1.90)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부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1.80	.60	-1.132	.258
	여	1,048	1.83	.59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1.78	.60	-2.936**	.003
	있음	1,277	1.90	.59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1.80	.60	-1.545	.123
	있음	1,588	1.83	.59		
일주일 운동시간	없음	863	1.87	.61	3.519***	.000
	있음	1,402	1.78	.58		
동아리 활동	없음	1,418	1.90	.60	8.348***	.000
	있음	847	1.70	.57		

* $p < .05$, ** $p < .01$, *** $p < .001$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강요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강요의 차이는 <표13>과 같다. 강요는 성별($t=1.730$, $p=.084$), 평일 독서시간유무($t=.013$, $p=.990$),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t=-.88$, $p=.380$),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605$, $p=.546$), 교내동아리참여유무($t=1.727$, $p=.084$) 변수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강요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10	.58	1.730	.084
	여	1,048	2.06	.56		
평일	없음	988	2.08	.58	.013	.990
독서시간	있음	1,277	2.08	.56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06	.59	-.88	.380
	있음	1,588	2.08	.56		
일주일 운동시간	없음	863	2.07	.57	-.605	.546
	있음	1,402	2.09	.57		
동아리 활동	없음	1,418	2.10	.56	1.727	.084
	있음	847	2.05	.59		

* $p < .05$, ** $p < .01$, *** $p < .001$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비일관성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일관성의 차이는 <표14>와 같다. 비일관성은 교내동아리참여유무($t=2.083$, $p=.037$)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t=-.77$, $p=.441$)과 평일 독서시간유무($t=-.552$, $p=.581$),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t=-.502$, $p=.616$),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1.920$, $p=.055$)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M=2.02$)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비일관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일관성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0	.59	-.77	.441
	여	1,048	2.0	.58		
평일	없음	988	2.0	.60	-.552	.581
독서시간	있음	1,277	2.0	.57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0	.58	-.502	.616
	있음	1,588	2.0	.58		
일주일 운동시간	없음	863	2.03	.58	1.920	.055
	있음	1,402	1.98	.58		
동아리 활동	없음	1,418	2.02	.57	2.083*	.037
	있음	847	1.97	.61		

* $p < .05$, ** $p < .01$, *** $p < .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15>과 같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성별($t=2.478$, $p=.013$),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t=-3.510$, $p=.000$), 교내동아리참여 유무($t=2.213$, $p=.027$) 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일 독서시간유무($t=-1.454$, $p=.146$),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1.695$, $p=.090$) 변수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M=2.64$),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M=2.63$)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M=2.56$)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다.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64	.524	2.478*	.013
	여	1048	2.58	.488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2.59	.540	-1.454	.146
	있음	1277	2.63	.482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56	.501	-3.510***	.000
	있음	1588	2.64	.509		
일주일 운동시간	없음	863	2.59	.487	-1.695	.090
	있음	1402	2.63	.520		
교내동아리 참여	없음	1418	2.63	.469	2.213*	.027
	있음	847	2.58	.566		

* $p < .05$, ** $p < .01$, *** $p < .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 차이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평일 독서시간유무($t=-6.773$, $p=.000$)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2.179$, $p=.029$), 교내동아리 참여($t=2.440$, $p=.015$)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t=1.853$, $p=.064$),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t=-1.1291$, $p=.259$) 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평일 독서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M=2.50$)과 일주일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M=2.54$)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그릿이 낮게 나타났으며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M=2.59$)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그릿이 높게 나타났다.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58	.42	1.853	.064
	여	1048	2.55	.40		
평일	없음	988	2.50	.40	-6.773***	.000
독서시간	있음	1277	2.62	.41		
평일 운동 및	없음	677	2.55	.41	-1.129	.259
신체활동	있음	1588	2.57	.41		
일주일	없음	863	2.54	.40	-2.179*	.029
운동시간	있음	1402	2.58	.41		
교내동아리	없음	1418	2.59	.37	2.440*	.015
참여	있음	847	2.53	.46		

* $p < .05$, ** $p < .01$, *** $p < .001$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의 결과는 <표17>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와 종속변수의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r)는 .362이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따스함($r = .327$, $p < .001$)과 자율성($r = .344$, $p < .001$), 구조제공($r = .303$, $p < .001$)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거부($r = -.167$, $p < .001$), 강요($r = -.194$, $p < .001$), 비밀관성($r = -.250$, $p < .001$)은 삶의 만족

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긍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그릿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관계수(r)가 .263이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따스함($r = .168, p < .001$)과 자율성($r = .162, p < .001$), 구조제공($r = .133, p < .001$)은 그릿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거부($r = -.153, p < .001$), 강요($r = -.234, p < .001$), 비일관성($r = -.280, p < .001$)은 그릿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의 수준을 높이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매개변수인 그릿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r)는 .294이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릿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통제변수의 변인들과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매개변수인 그릿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은 삶의 만족도($r = .052, p < .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따스함($r = -.041, p < .05$)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중 따스함을 인식하는 수준이 여학생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평일독서시간은 거부($r = -.062, p < .01$), 그릿($r = -.141, p < .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일독서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그릿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평일운동 및 신체활동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r = -.074, p < .001$), 그릿($r = -.024, p < .05$)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일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와 그릿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일주일 운동시간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거부($r = .075,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그릿($r = -.046, p < .05$)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주일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그릿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교내동아리 참여는 삶의 만족도($r = .049, p < .05$), 그릿($r = .051, p < .05$)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

모양육태도($r=-.148$, $p<.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따스함($r=-.181$, $p<.001$), 자율성($r=-.142$, $p<.001$), 구조제공($r=-.064$, $p<.01$)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거부($r=.171$, $p<.001$), 비밀관성($r=.044$, $p<.05$)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릿의 수준이 높으며 긍정적 양육태도를 낮게 인식하고 거부와 비밀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및 그림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6.1	6.2	6.3	6.4	6.5	6.6	7	8
1. 성별	1													
2. 평일독서시간	.066**	1												
3. 평일운동 및 신체 활동	-.222***	.287***	1											
4. 일주일운동 시간	-.266***	.165***	.461***	1										
5. 교내동아리 참여	.017	.131***	.158***	.198***	1									
6. 부모양육태도	-.013	.022	.018	-.039	-.148***	1								
6.1. 파스함	-.041*	-.013	.000	-.040	-.181***	.755***	1							
6.2. 자율성	-.019	.033	.015	-.017	-.142***	.782***	.730***	1						
6.3. 구조제공	-.004	-.005	-.004	-.004	-.064**	.608***	.536***	.538***	1					
6.4. 거부	-.024	-.062**	-.032	.075***	.171***	-.741***	-.411***	-.413***	-.224***	1				
6.5. 강요	.036	.000	-.019	-.013	-.036	-.691***	-.276***	-.339***	-.184***	.538***	1			
6.6. 비일관성	-.016	-.012	-.011	.040	.044*	-.742***	-.359***	-.403***	-.251***	.547***	.590***	1		
7. 삶의 만족도	.052*	-.031	-.074***	-.036	.049*	.362***	.327***	.344***	.303***	-.167***	-.194***	-.250***	1	
8. 그림	.039	-.141***	-.024*	-.046*	.051*	.263***	.168***	.162***	.133***	-.153***	-.234***	-.280***	.294***	1

* $p < .05$, ** $p < .01$, *** $p < .001$

더미처리기준변수:성별여부= 남, 1 / 2=5= 없다, 1

5. 연구문제 검증

1) 1단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표18>에서 1단계 모형을 보면, 수정결정계수(adj.R²)가 .117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의 변량을 약 11.7%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28.261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따스함($\beta = .073, p < .001$)은 그릿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강요($\beta = -.113, p < .001$), 비일관성($\beta = -.201, p < .001$)은 그릿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에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t통계량, p-value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해당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평일독서시간($\beta = -.147, p < .001$), 교내동아리참여($\beta = .075, p < .001$)가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릿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일관성($\beta = -.201$), 평일독서시간($\beta = -.147$), 강요($\beta = -.113$), 교내동아리참여($\beta = .075$) 따스함($\beta = .07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2는 일부는 채택되었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따스함이 높고 비일관성과 강요가 낮을수록 그릿이 높았으며 평일독서시간이 짧고, 교내동아리참여가 많을수록 그릿이 높았다.

2) 2단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18>에서 2단계 모형을 보면, 수정결정계수(adj.R²)가 .174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약 17.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44.383으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따스함($\beta=.132$, $p<.001$), 자율성($\beta=.154$, $p<.001$), 구조제공($\beta=.130$,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일관성($\beta=-.110$, $p<.001$)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에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t통계량, p-value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해당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성별($\beta=.048$, $p<.05$),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beta=-.072$, $p<.01$), 교내동아리참여($\beta=.105$,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율성($\beta=.154$), 따스함($\beta=.132$), 구조제공($\beta=.130$), 비일관성($\beta=-.110$), 교내동아리참여($\beta=.105$), 평일 운동및신체활동($\beta=-.072$), 성별($\beta=.04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의 일부는 채택되었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따스함, 자율성, 구조제공등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부모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남학생일수록,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지않을수록, 교내동아리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3) 3단계: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의 그릿의 매개효과

<표18>에서 3단계 모형을 보면, 수정결정계수($adj.R^2$)가 .212으로 통제변수와 부모양육태도 및 그릿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약 21.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51.774로 추정된 회귀식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의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beta=.117$, $p<.001$), 자율성($\beta=.153$, $p<.001$), 구조제공($\beta=.123$,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beta=-2.671$, $p<.01$)은 삶의 만}

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러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4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그릿($\beta=.208,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자율성($\beta=.153, p<.001$)과 구조제공($\beta=.123, p<.001$), 따스함($\beta=.117, p<.001$)등 긍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beta=-.068, p<.01$)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단계에서 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나,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릿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8>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 그것의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 → 매개		매개 → 종속		독립 → 종속		독립·매개 → 종속		공선성	통계량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904		36.674	1.506		12.216	1.327		12.823			
성별(남=1)	.041	.050	2.406	.049	.048	2.368*	.038	.037	1.891	.890	1.123	
평일독서시간	-.122	-.147	-7.163***	-.021	-.020	-1.007	0.11	0.11	.542	.901	1.110	
평일운동및신체활동	.024	.027	1.204	-.079	-.072	-3.261**	-.086	-.077	-3.603***	.755	1.324	
일주일운동시간	-.026	-.031	-1.379	.008	.008	.369	.015	.014	.681	.772	1.296	
교내동아리참여	.063	.075	3.651***	.110	.105	5.329***	.094	.090	4.637***	.929	1.076	
따스함	.055	.073	2.382*	.124	.132	4.456***	.110	.117	4.031***	.414	2.415	
자율성	.001	.002	.057	.144	.154	5.140***	.144	.153	5.250***	.408	2.450	
부모양육 태도	.029	.035	1.431	.134	.130	5.536***	.126	.123	5.350***	.662	1.511	
거부	.027	.039	1.491	.038	.045	1.765	-.031	-.037	-1.478	.562	1.781	
강요	-.081	-.113	-4.351***	-.043	-.048	-1.910	-.022	-.025	-.992	.570	1.754	
비일관성	-.141	-.201	-7.575***	-.096	-.110	-4.274***	-.059	-.068	-2.671**	.539	1.856	
매개변수							.259	.208	10.467***	.879	1.138	
R^2		.121			.178				.216			
Adjusted R^2		.117			.174				.212			
F		28.261***			44.383***				51.774***			

* $p < .05$, ** $p < .01$, *** $p < .001$

더미처리기준변수: 성별(거부= 남, 1 / 2=5= 없다, 1

부모양육태도 중에서 자율성과 구조제공, 따스함, 비밀관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확인에서 z값은 매개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절댓값 1.96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독립변수인 자율성, 구조제공, 따스함, 비밀관성에 대하여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z값은 6.532($p < .01$), 5.824($p < .01$), 6.732($p < .01$), 8.939($p < .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4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Sobel Test

	B	SE	z	p
자율성 → 그릿 → 삶의만족도	.001	.023	6.532**	.01
구조제공 → 그릿 → 삶의만족도	.029	.029	5.824**	.01
따스함 → 그릿 → 삶의만족도	.055	.023	6.732**	.01
비밀관성 → 그릿 → 삶의만족도	.141	.019	8.939**	.01

** $p < .01$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그릿의 매개역할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청소년의 삶에 가장 직접적 환경을 제공하는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태도와 함께 독서와 운동, 동아리참여 등 다방면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역할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첫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217명(53.7%), 여학생 1,048명(46.3%)로 남학생이 많았으며, 평일 독서시간을 전혀 갖지 않는 학생이 988명(43.6%)로 가장 많았고 30분 미만이 579명(25.6%), 30~1시간 미만이 402명(17.7%)로 나타났다.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에서도 전혀 안함이 677명(29.9%)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미만이 493명(21.8%), 30분~1시간 미만이 493명(21.8%)순이었다.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63명(38.1%)로 가장 많았고 1시간은 564명(24.9%), 2시간은 379명(16.7%), 3시간은 235명(10.4%)로 많았다. 교내동아리 연간 참여횟수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418명으로 전체 62.6%를 차지하였고 1~2회가 196명(8.7%), 3~4회가 145명(6.4%), 5회 이상이 506명(22.3%)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의 차이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차이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교내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따스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 인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성남(2021)의 연구와 유사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송홍정(202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자율성과 구조제공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이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와 비일관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라 부모양육태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다. 즉, 신체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이진표(2020)의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에서 독서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과 일주일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의 그릿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의 그릿이 높게 나타났다. 교내동아리의 참여여부는 부모양육태도 인식에서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그릿에서는 다른 결과이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 따스함은 그릿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강요와 비일관성은 그릿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가 따스할수록 그릿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와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그릿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가 그릿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그릿간의 정적인 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이현정, 2020; 이선형, 2020; 손보영 외, 2021).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이며 자녀를 지지하고 신뢰하며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의 중요성을 부모교육이나 매체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따스함과 자율성, 구조제공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일관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따스함, 자율성, 구조제공등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서선숙, 2017; 전병주의, 2020; 조성남, 2021)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릿은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릿을 매개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대할수록 청소년의 그릿 수준이 높아지고 그릿의 수준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이 삶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Singh & Jha, 2008; 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이현정 외, 2021)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20>과 같다.

<표 20> 연구가설 검증결과

구분	가설	검증결과
[연구가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 태도, 삶의 만족도, 그것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2-2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평일 독서시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2-3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2-4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일주일 운동시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2-5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내동아리 참여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그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그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3-2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평일 독서시간에 따라 그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3-3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에 따라 그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3-4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일주일 운동시간에 따라 그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3-5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내동아리 참여에 따라 그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구분	가설	검증결과
[연구가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은 그릿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은 그릿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구조제공은 그릿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는 그릿에 유의한 부(-)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는 그릿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은 그릿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중 구조제공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구분	가설	검증결과
[연구가설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릇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과 삶의 만 족도 간에 그릇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4-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과 삶의 만 족도 간에 그릇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4-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구조제공과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릇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4-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와 삶의 만족 도 간에 그릇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4-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와 삶의 만족 도 간에 그릇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4-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과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릇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2. 제언 및 한계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위한 실천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특별히 여기고 자녀를 믿어주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반면, 부모의 강요, 거부적 행동과 언행, 비일관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삶의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가정에서 양육자의 역할이 자녀에게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녀와의 대화법, 감정처리법, 갈등조절법등에 대한 연구와 긍정적인 표현의 부모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내에서 언제든지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상시 교육이 제공되는 환경을 제안한다.

둘째, 매개변인인 그릿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열정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그릿의 자세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그릿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인식 및 정책연구과정에서 그릿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고 부정적 양육태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에서는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신성희(202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가 개별사례 내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사례 간 효과에서는 동아리활동 참여가 주관적 행복감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내동아리 활동이 청소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점에서 차후 교내동아리의 수준과 내용, 자발적 참여면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평일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릿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삶에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며,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활력소 역할을 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미와 염유식(2018)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며 평일 운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학교에서의 체육 활동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KCYPS 4차년도(2021)년의 고등학교 1학년 2,265명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적으로 표집을 하였으나 이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

되는 시기의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과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에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청소년의 범위를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제한했다는 것에서 보다 다양한 학년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위, 학년별 범위에 따른 척도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부모의 양육태도로 한정하여 탐색하였지만 더 다양한 변인의 구조를 두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가족의 여러 형태를 고려하여 주양육자가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자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보겸(2015), 최혜림(2017)의 청소년 리더십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학력, 청소년의 학업성적등이 주요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일률적이고 규격화된 범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 학교, 또래, 종교등 다양한 변인으로 보다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만족도, 그것의 연구를 위해 사용한 문항의 범위가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문항이 24문항, 삶의 만족도 문항이 5문항, 그것의 7문항이다. 특히 그것 문항의 경우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임효진, 양지승, 2019)에서 흥미유지요인의 문항이 모두 부정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부정 진술문의 경우 응답자의 체계적인 반응 편파성에 의한 방법 효과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Horan, Distefano, & Motl, 2013).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양한 변인과 문항으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 청소년의 삶에 만족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이 제공되어 교육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것의 매개효과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문선·양수진.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화·강박열정과 그릿(Grit)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79-101.
- 강보은. 2021.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자녀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1(3), 409-435.
- 강희진.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대훈. 2018. “고등학교 교사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그릿(Grit), 스트레스, 삶의 만족 간의 관계”. 『교원교육』 34(3), 209-228.
- 권미나·이진숙. 2020.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화와 아동의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비교”. 『아동과 권리』 24(2), 179-195.
- 권윤정.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및 비행경험의 조절효과”.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권이종. 1996.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권일남·정철상·김진호·김영철. 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 기성진. 2012.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7(5), 127-136.
- 김경미·염유식, 2018, “청소년의 매체중독과 주관적 행복”. 『보건과 사회과학』 48, 121-142.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탄력성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도. 2010.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 쌤앤파커스.
- 김문실 외. 2002. 『가족건강과 간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소야자. 2004. 『청소년의 성질발달과 간호』. 경기: 수문사.
- 김소영·송주연. 202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방식의 프로파일과 과제가치의 성장잠재계층 간 잠재전이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1(2), 123-154.
- 김순규. 2004. “가족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43-63.

- 김예성·안재진. 2014.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른 여자 청소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1, pp.40-64.
- 김용희·한창근. 2017. “부모 삶의 만족도와 아동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3), 29-55.
- 김정연·정현주. 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김정열·김산용. 2014. 『청소년복지론』. 고양: 공동체.
- 김주환. 2013. 『그릿 Grit : 잠재력을 실력으로, 실력을 성적으로, 결과로 증명하는 공부법』. 파주: 쌤앤파커스.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진구·박다은. 2003. “청소년기 그릿과 시련극복역량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51-67
- 김태명·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희연. 201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김소연. 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87-114
- 노혁. 2010. 『청소년복지론』. 경기: 교육과학사
- 달그락 청소년과 정건희·김민·김세광·이용교·정은균, 2018.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한 마을』. 군산: 도서출판 진포.
- 류시영·강방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류영주·양수진. 2017. “내재적·친사회적 동기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발달』 30(4). 93-115.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2009.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

- 실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호경. 202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직렬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25-43.
- 박선희. 2022. “부모의 양육 차원이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층메타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 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영신·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영신·김의철·정갑순·이상미·권혁호·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예라. 2020.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건강성, 자기성찰지능, 그릿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 및 성별에 의한 다집단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용진·나승일. 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소속감,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그릿(Grit)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2), 97-120.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기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현·이태자.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시간과 참여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3(2), 237-248
- 박화옥·김민정. 2019. “청소년 우울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매개변인 탐색연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6, 1-24.
- 박효정·연은경. 2003. “한국중학생의 생활 및 문화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백승희·전현정·이정민·정혜원. 2019. “모와 자녀가 지각한 우울, 자아존중감, 주

- 관적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행위자 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30(2), 93-118.
- 법제처. 2004. www.moleg.go.kr.
- 서선숙. 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서혜전. 2012. “방과후 방치와 아동의 공격성, 위축, 우울과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10(3), 25-41.
- 세이브더칠드런. 2021.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 .
- 손보영·김수정·박지아·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 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손진희·손은령. 2007. “가정환경, 컴퓨터 과다사용 및 인터넷 관련 비행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1), 135-162.
- 송헌복 역. 2001. 『상한 감정의 치유』 . Seamands. David A, 서울: 두란노.
- 송홍정. 202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미·전성희·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성철. 2018. 『청소년 심리 및 상담』 . 경기: 정민사.
- 신성희. 2023.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수지.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호정·이지희. 2018.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차이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3(4), 161-173.
- 양예원. 2017. “청소년 대화 주제운용능력 발달: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신자. 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경기: 인간과 복지.
- 오해섭·최인재·염유식·김언주,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37.
- 유엔(UN). 1985. 『세계 청소년의 해 세계회의』 .
- 이미리·김춘경·여종일. 2019. 『청소년 심리 및 상담』 . 서울: 학지사
- 이보람. 2020. “스포츠 그릿(Sports Grit)의 메커니즘 탐색: 선수들의 그릿 성장을 위한 질적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9(4), 371-389.
- 이선형. 2020. “학령기 아동의 그릿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분석”.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형·최자은. 2019. “학령기 아동의 그릿, 성장 마인드셋, 기본심리욕구,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3), 155-168
- 이영지.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창의적 성격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숙. 2013. “청소년의 충동성과 자살사고관계연구: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1-22
- 이진표. 2020.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삶의 만족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8), 321-330.
- 이창호·양미진. 2005.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충권·양혜린. 2015. “청소년의 학대·방임경험이 정서문제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와 또래관계 간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61-285.
- 이현정·전주성.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와 그릿의 이중매개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 20(4), 35-56.
- 이현주·채유정. 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 임현희. 2018. “청소년용 학업적 그릿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효진. 2017. “그릿의 최근 연구동향과 재개념화의 필요성”. 『교육심리연구』 31(4), 663-681.
- 임효진·이소라. 2020. “그릿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109-127.
- 임혜림·김서현·정익중. 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명순·김태균. 2018.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된 조절효과에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16(1), 123-132.
- 전보겸. 2015. “사회적 지지 및 개인적 변인이 중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효성·이귀옥. 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191-210.
- 정대근·홍현진. 2014. “청소년 독서유효성 영향요인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271-295
- 정문경·오은주.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2), 83-93.
- 정은주. 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 열의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은혜. 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존감수준과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남. 2021.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희·박소영, 20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4), 801-818.

- 조아미. 2004. “청소년의 여가동기가 여가만족도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333-353.
- 조채윤·권연희. 2014.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 및 언어능력의 역할”. 『한국보육학회지』 14(1), 51-72
- 주영돈. 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 및 우울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진화·노중숙. 2018.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특성화고와 비특성화고의 차이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2(5), 227-254.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3. 『2023 아동행복지수』 .
- 최영미. 2020. “아동의 그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복지연구』 18(2), 1-17.
- 최진수·정혜원. 2021. “청소년 체험활동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그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299-1318.
- 최혜림. 2017.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 및 스마트폰 과몰입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선·양수진. 201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림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105-123.
- 추성경. 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지능과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개발원. 2020. 『SDGs 지표 훑어보기』 . 대전:통계청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22. 『한국인의 사회 동향 2022』 .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황소연. 2014. “홀로사는 노인이 독거생활에 대한 자발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용. 2022. “중학생이 지각하는 친구관계와 부모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3), 477-504.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6.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29-511.
- Datu, J., Valdez, J., & King, R. 2016. “Perseverance counts but consistency does not! Validating the short grit scale in a collectivist setting.” *Current Psychology*, 35(1), 121-130.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L. 2019.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Endendijk, J. J., Groeneveld, M. G., van der Pol, L. D., van Berkel, S.R., Hallers Haalboom, E. T., Bakermans Kranenburg, M. J., & Mesman, J. 2017. “Gender differences in child aggression: Relations with gender differentiated parenting and parents’ gender role stereotypes.” *Child Development*, 88(1), 299-316.
- Erikson, Erik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ishbein, M. S.,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 Hoerr, T. R. 2013. "Fostering grit: How do I prepare my students for the real world?"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Kimmel, D. C., & Weiner, I. B. 1995. "Adolescence: a developmental transition (2nd ed.)." New York: Wiley.
- Kleiman, E., Adams, L. M., Kashdan, T. B., & Riskind, J. H. 2013. "Gratitude and grit indirectly reduce risk of suicidal ideations by enhancing meaning in life: Evidence for a mediated moderation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5), 539-546.
- Koruklu, N. 2015. "Personality and social problem-solv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5(2), 481-487.
- Mandelbaum, T.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grit in lower income adolescents."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14(1), 59-74.
- Pennings, S., Law, K., Green, B., & Anestis, M. 2015. "The impa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suicid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8(2), 130-142.
- Rohner, R. P., Khaleque, A., Riaz, M. N., Khan, U., Sadeque, S., & Laukkala, H. 2005. "Agreement between children's and mothers' perceptions of maternal acceptance and rejection: A comparative study in Finland and Pakistan." *Ethos*, 33(3), 367-377.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chaefer, E. S. 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413-424.

- Schelsky, H. 1965. "Auf der Suche nach Wirklichkeit." Düsseldorf : Diederichs.
- Schriesheim, CA. & Hill, K. 1981. "Controlling acquiescence response bias by item reversal: The effect on questionnaire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 1101-1114.
- Shaw, K. 2017. "Hovering or supporting: Do parenting behaviors affect their college-offspring's perseverance? (Doctoral dissertation)." Miami University, Ohio.
-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special issue), 40-45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Vall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
- Symonds, P. M. 1949. "Education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0(1), 1-32.
- West, M. R., Kraft, M. A., Finn, A. S., Martin, R. E., Duckworth, A. L., Gabrieli, C. F. O., & Gabrieli, J. D. E. 2016. "Promise and paradox: Measuring students' non-cognitive skills and the impact of school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38(1), 148-170.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Nam, Song 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 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In this study, 1,217 men (53.7%) and 1,048 women (46.3%) and a total of 2,265 data were processed using SPSS Statistics 21 as the 4th (high school) data of the first middle school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or the analysis method, reliability verification an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major variables by obtaining Cronbach's α valu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Baron and Kenny's mediating effect procedure and Sobel test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increase life satisfaction without affecting their children's lives. On the other h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negatively affect children's satisfaction with lif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grit. This means that whether parents perceive parenting attitudes positively or negatively can affect grit,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als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grit.

Third, the mediating variable, Grit,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positive (+) effect on Grit, and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consistency, had a nega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t is analyzed that Grit's attitude to continuously strive to achieve his or her goal and faithfully play his role with enthusiasm can increase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the basis for parental education for the positive role of parents in the home and support for educational policies that can develop Grit.

Keywords: Adolescents, parenting attitudes, life satisfaction, grit

부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아동·청소년(중학교 1학년 코호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코호트 제1차)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KANTAR PUBLIC**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120
E-mail : kcyps@nypi.re.kr

조사대행기관
칸타퍼블릭
홈페이지 : kantarpUBLIC.co.kr
TEL : 010-3509-0914
E-mail : jiyoung.hwang@kantarpUBLIC.com

[양육태도 문항]

▣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9)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7)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9)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삶의 만족도 문항]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그릿 문항]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 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 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